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96)(11/27/2021)

제 3 권 내적 위로

제 6 장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임을 증명함, 1-3 절

빌 4:11-13 -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욥 1:20-22 - 20. 욥이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1. <그리스도> 내 아들이야, 너는 아직 뜨겁고 사려 깊게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다. <제자> 주여,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너는 작은 반대에도 흔들려서 네가 하던 일들을 그만두어 버리고, 위로만을 너무나 간절하게 구하기 때문이다. 뜨거운 사랑을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들 속에서도 요동함이 없이 견고하고, 원수 마귀의 교묘한 구슬림에도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형통할 때에만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에 처해 있을 때에도 여전히 나를 못마땅해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한다(빌 4:11-13).

2. 사려 깊은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분이 주시는 선물보다는,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의 사랑을 더 마음에 둔다. 그런 사람은 선물의 값어치보다도, 그 선물에 담긴 사랑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분이 주시는 모든 선물보다도 사랑하는 분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긴다. 고귀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선물에 만족하지 않고, 그 어떤 선물보다도 내 자신에 만족한다. 그러므로 네가 원하는 만큼 나나 나의 성도들을 잘 대하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너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은 아니다. 네가 종종 느끼는 저 선하고 달콤한 사랑의 감정은 이 세상에서 은혜를 받았을 때에 생겨나는 것이고, 하늘의 분향을 일정 정도 미리 맛보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나치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반면에, 네가 마음에서 생겨나는 악한 움직임에 맞서 싸우고, 마귀의 속삭임을 물리친다면, 그것은 네 속에 은혜로 말미암은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장차 큰 상을 받을 일을 행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표이다.

3. 그러므로 네 마음속에서 그 어떤 이상한 현상들이 생겨나도, 너는 당혹감에 빠져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네가 처음에 가졌던 그 목표를 견고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의도를 견지하라. 이따금씩 황홀경에 사로잡혔다가 곧 다시 평상시의 둔감한 마음으로 되돌아오곤 하는 것은 환각 현상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네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맞서 싸운다면, 그것은 네게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 된다.

말씀과 해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 중의 하나는, 인생의 어려움, 시험, 환난을 당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으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란 인간 사이의 에로스적인 애뜻한 감정으로 표현되는 그런 형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에 바탕을 둔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은 인간의 감정에 의존하는 사랑을 넘어 전 존재로 사랑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 6:5)고 하셨다.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진다. 따라서 만약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사람은 인생길에서 당하는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곳곳하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 선물, 응답, 도움 등이 아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러므로 설사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사고, 고난, 시련, 실패 등 부정적인 현실을 맞이할 때에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은 엄청난 고난을 당한 욥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욥은 갑자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욥 1:20-22 - 20. 욥이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마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부귀와 영화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만약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을 가져가시면 욥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은, 욥이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이 아니라 그 소유물을 주신 하나님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은 우리 자신을 반성하게 한다. 나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가? 혹시 나는 주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것을 더 사랑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는 않는가?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져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도, 생각지 못한 어려움, 실패, 고난을 갑자기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우리 스스로가 고백해야 하는 것들이다. 동시에 그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들이기도 하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다사다난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은연 중에 드러난다. 내가 만약 주를 향한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품고 있다면, 나는 행복한 상황이든 불행하게 보이는 상황이든, 성공의 순간이든 실패의 순간이든, 어떤 순간에도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욥은 처절한 고통의 순간, 믿음을 고백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자신의 입술 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으로, 생각, 그리고 온 존재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고백하였다. 하나님은 그러한 욥의 중심을 보셨다.

우리는 겉으로는 얼마든지 우리를 가장하고 꾸밀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정말 힘들 때에는 가장도 어렵고 꾸밈도 어려우며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특히 고난 중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근본적으로 주님을 향한 나의 심령의 중심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고난 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펜데믹을 하루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새로운 변이의 출현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게 하옵소서.
3. 박해 가운데에서도 인내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구원과 자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